

[종합·해설]

■ 강재섭 대표 왜 광주·전남북 잇따라 방문하나

한나라 호남꺼안기 '다시 한번'

단체장 만나 내년 예산 적극 지원 약속

대선겨냥 '지지율 10%이상' 목표 노력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달중 '호남 꺼안기'를 또 다시 시도한다. 이번에는 비록 다른 당 출신이지만 광주와 전북지역 광역단체장과 만나 실질적인 예산 지원 문제까지 협의할 계획이다.

주와 김재, 10일 목포와 광주를 잇달아 방문한다. 취임 한 달만에 벌써 세 번째 광주·전남 방문이다. 하한기 민생투어의 일환이다. 하지만 당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만 같은 달 14일에는 이재오 최고위원이 당무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순천 선암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핵심 당직자는 "한자릿수 내에 머물고 있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두자릿수 대로 끌어올려야 전국 정당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대선 승리로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당 차원의 호남 챙기기 행보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행보가 호남에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 당내의 일반적 예측이다. 개인적으로 호남 공들이기를 계속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호남 꺼안기"라든가 '호남 공략' 차원의 일시적 방문과 지인, 생색내기 인사 대응 등으로는 현재의 골을 메울 수 없다"며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 보다 진정성있는 호남 다가가기와 이해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케냐 뭍바사항에 무사히 도착해 자유의 몸이 된 동원호 선원들이 뭍바사 도착 직후 부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준원 통신장, 황상기 기관장, 최성식 선장, 위선환 갑판장. /연합뉴스

동원호 선원 9일 한국 도착

소말리아 해적들에 납치됐다 풀려난 후 5일 케냐 뭍바사항에 도착한 동원호 한국인 선원들이 항공편으로 오는 9일 오후(한국시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최성식 선장 등 한국인 선원 8명 가운데 황상기 기관장을 제외한 7명은 8일 오전(현지시간) 뭍바사를 떠나며 나이로비와 두바이를 거쳐 아랍에미리트 항공(EK)편으로 9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현지에서 도착한 동원호수선 관계자가 밝혔다.

후추 귀국 길에 오를 예정이다. 외국인 선원 17명 가운데 중국인 선원 3명이 6일 뭍바사를 떠났으며, 나머지 외국인 선원들도 본인들의 배에 오를지 모르지 않거나 배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호 새 한국인 선장이 도착했으며, 10일 가람 인수작업을 거쳐 조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동원호수선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동원호 선원 25명은 석방 6일째인 전날 뭍바사항에 무사히 입항하는 것으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무려 123일만에 비로소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음을 가족과 국민에게 알렸다. /연합뉴스

“야스쿠니 신사참배 자제해야”

潘외교, 9일 아베나나 新한일관계 메시지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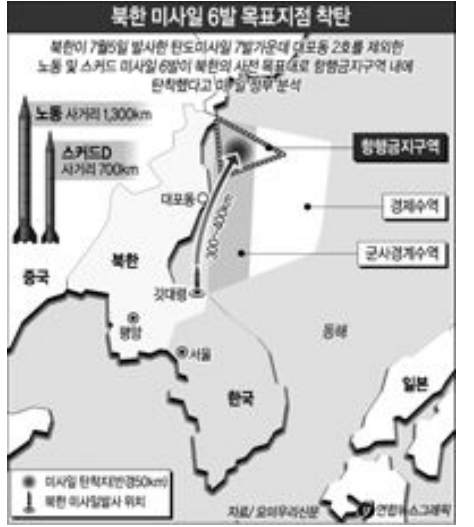
반기문 외교총장 부관이 9일 도쿄(東京)에서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될 것이 유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과 만난다. 반 장관은 아베 장관과 만나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한국측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히 한일 관계 개선의 장에 대해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한 자세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6일 밝혔다.

라고 밝혔다. 그는 "반 장관이 아베 장관을 만나면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도모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문제가 중요 화제로, 차세대 일본 지도자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이 9일 일본 총리 선거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이번이 없는 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베 장관과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기회를 활용, 9일 오전 아베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北 미사일 6발 목표지역 착탄”

미·일 분석

북한이 지난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7발 가운데 대포동 2호를 제외한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 6발이 북한이 사전에 설정한 항행금지구역 내에 착탄했다고 미·일 양국 정부의 분석에서 판명됐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발사 직후에 낙하지점이 400~500km 범위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북한이 목표했던 대로 비행 50km의 범위 내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방위청은 이에 따라 북한이 갖고 있는 노동(사정 1천300km)과 스커드 미사일(사정 300~500km)의 명중률이 일정 수준 향상될 실전 배치 단계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역대 국방장관 “작통권 환수 우려” 재차 표명

10여명 오늘 성명서 발표 예정

역대 국방장관 중 일부가 지난 2일 윤광웅 국방장관과의 간담회에 이어 7일 자체 회동을 갖고 정부의 전시 작통권 환수 추진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예비의 장성 모임 '성우회'의 안보 전문위원인 윤광호 예비의 준장은 6일 "국방장관을 역임한 10여 명이 7일 오전 11시 서울 신촌동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전시 작통권 환수 움직임에 대한 논

의와 함께 이에 대한 우려 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7일 모임에는 지난 2일 윤 국방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정은, 이상준 전 장관 등 13명의 전직 장관 외에도 김동신, 이병태 전 장관 등 모두 15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北 “현대와 변함없이 추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금강산관광 등 현대그룹과의 남북경협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혀 주목된다. 북한 아시아태평양광화위원회는 고정동원 현대그룹 회장 3주기를 맞아 지난 1일 현대그룹에 보낸 조문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길을 앞장서 개척한 정동원 회장을 추모하다"며 "아울러 6.15 공동선언의 이념하에 정동원 선생이 심혈을 기울여 온 금강산관광 사업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명승지종합개발회사도 전문을 보내 "앞으로도 은 거래의 지향과 고인의 열원에 따라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귀사의 사업에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Doosan 7th District Development Office notice regarding land acquisition and construction progress.

Doosan 7th District Development Office notice regarding land acquisition and construction progress.

Notice regarding the purchase of a used car (2nd hand).

Advertisement for Uretek waterproofing services, highlighting their expertise in various construction types.

Advertisement for Uretek's advanced construction methods, including foundation and structural reinforcement.

Advertisement for Uretek's advanced construction methods, including foundation and structural reinforcement.

Advertisement for Sanhaeng Annyeong, listing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various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services, including land acquisition and construction.